

20세기 전반 동·서양의 시대색에 관한 비교 연구

-시대 복식과 현대 영화 의상에서의 재현비교를 통해-

윤지영* · 노주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

The Study of Color Images in the Eastern and the Western Culture

-A Comparison between Early 20th Century Clothes and the Reinterpretation in Modern Film Costumes-

Jiyoung Yun* · Juhyun Ro⁺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2. 7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olor images of clothes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 Eastern and Western culture and the recreation of this color images through modern costume design in fil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early 20th century color has been reinterpreted through present film costumes and how different cultural perspectives can influence color images.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30 pictures of clothing, representative of the early 20th century, as well as films which have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ed for their costume design and strong cultural identity('Farewell My Concubine', 'Raise the Red Lantern', 'Chicago' and 'The English Patient') were chosen and analyzed. The color image of these photographs and scenes from the movies were divided by Pantone Solid Chips and categorized by color groups such a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violet, neutral and metallic.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olor images in the early 20th century showed that the red group was used a lot in both cultures and the orange group was more often used in the West. In regards to the yellow group, goldish yellow were commonly used in the West but pale yellow was preferred in the East. The green group more used in the West but the blue group appears more in the East. Also, there were differences in color combination, texture and technique which demonstrates different cultural color recognition and association. In the case of film color image, present color image was added to past color image. In the West, color was used as a tool for visualizing the state of characters' mind and the mood of movies' story but in the East color image was intended to make the character stand out by changing the value and chroma. By comparing the color image of clothes from the early 20th century and color image from film in

the West and the East,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cultural symbolic image of color. This study is one of first trials to analyze the cultural differences in color images and their symbolic meaning. Thus, further studies should pursue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culture on the color image in terms of specific quantity and quality.

Key words: color image(색채 이미지), film costume(영화의상), cultural perspectives(문화적 시각), cultural identity(문화 정체성)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적, 지역적 문화 범주에 따른 복식의 색채 이미지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며 새로운 세기를 시작했던 20세기 전반기 동, 서양이라는 다른 문화를 통한 색채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의 문화별 색채에 대한 선호도나, 색채 사용의 차이, 색채 이미지를 통한 문화의 시각적 전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단순히 과거의 색채에 대해 분석함을 넘어, 현대 문화의 전달과 소통의 핵심인 '영화'라는 대중 문화매체를 통해 과거의 시대 색감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재해석되고 있는지, 대중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봄으로써 현재의 시각으로 재구성된 20세기 전반의 시대색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는 문화적 관점에서 본 색감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찾고, 색채 이미지가 문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이성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문화를 설명하는 것은 문화의 표면적인 측면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색채 이미지를 통한 문화의 특성은, 보다 감성적이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문화의 내면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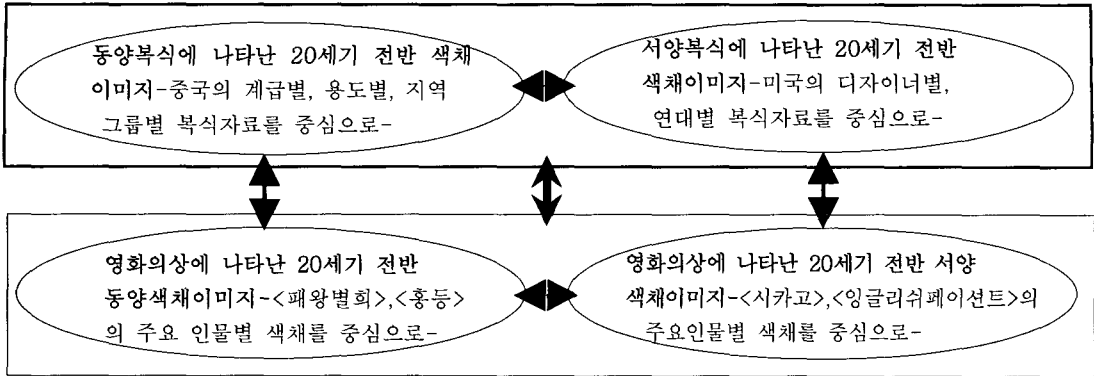
이를 위해, 우선, 20세기 전반 동, 서양의 대표적인 복식에 나타난 색채를 분석해 시대색을 규명하고, 동, 서양의 색채 사용을 비교하여 이를 통해 20세기 전반 동, 서양에서의 시대적 색감의 특성을 고찰한다. 각 문화별 대표성과 자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식사진 각각 30여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색과 장식색으로 나누어 관찰한 후 팬톤 컬러

(Pantone Solid Chips)를 사용하여 색상군별(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무채색/메탈릭)로 분류해 비교하고자 한다. 군별 분류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색감을 비교, 분석해 각 문화별 색의 선호도와 시대적 색감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도출해 낸 시대색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제작된 현대영화에서 20세기 전반기 시대색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영화를 통해 살펴본다. 영화는, 4대 영화제에서 감독상, 미술상, 의상상 수상작을 추출하여, 20세기 전반을 다룬 영화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영화제를 통해 문화별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고,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에 동양을 대표하는 영화로는 패왕별희(Farewell My Concubine), 흥동(Raise the Red Lantern)을, 서양의 경우는 시카고(Chicago), 잉글리쉬 페이션트(The English Patient)가 선정되었다. 시대를 20세기 전반으로 한정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양은 중국의 영화가, 서양은 주로 미국 영화가 선정된 점을 미리 밝혀 둔다. 영화 분석은, 각 영화의 인물별 색채 사용을 칼라칩을 통해 군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색채 이미지와 특성, 인물의 성격에 따른 색채의 의미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시대색 분석을 통해 도출된 동, 서양의 공유성과 특이성을 바탕으로, 현대 영화에서의 색 재현을 분석함으로써, 시, 공간의 문화별 색채선호도와 색채의 재현 및 재구성, 동서양 대표적인 색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색채 이미지를 통한 문화와 색채의 다양한 연관관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표 1〉 연구 방법



II. 동 서양에서의 색채

형태와 색채는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조형적 언어이며 이 중 색채는 관객으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심리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조형 요소이다. 사람들은 모든 색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색에 대한 뚜렷한 기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색채를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경험과 인상의 강약에 따라 그 색과 관계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연상한다. 색 연상은 경험에 따라 고유화된 것으로, 그 색을 보는 사람의 경험과 기억과 지식 등에 영향을 받으며 그 사람의 민족성, 성별, 연령,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환경, 교양, 직업 등에 따라서 다르며 시대에 따라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다.¹⁾ 사람은 색채를 통해 자신의 기분, 개성, 불안감 등을 전달한다. 감각의 감정상태에 따라 색채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지만, 보편적인 연상을 주는 색채도 있다. 색은 신분을 부여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²⁾

중국의 일반적인 색에 관한 관념은 음양오행설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황색, 적색, 청색, 백색, 흑색이 오행을 이룬다. 또한 대표적인 중국 문화인 경극색⁴⁾을 살펴보면, 충성과 강직, 혈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근엄과 장중 및 정의감을 상징하는 자주색, 강경함과 무모한 용기를 동시에 상징하는 검은색, 간사함과 의심 많음, 흉악함, 포악함 등을 상징하는

하얀색, 강직과 도도함을 상징하는 파란색, 공공이가 있거나, 용맹함을 상징하는 노란색, 거친 용기를 상징하는 초록색, 위세와 장엄함을 의미하는 황금색, 신선이나 요괴 등의 배역에는 주로 황금색이나 은색을 사용한다. 또한, 색⁵⁾⁶⁾은 등급차별의 구분 표지가 되었다. 노예사회 시기부터 이미 시작하여 선명하고 화려한 정색은 오직 노예주 통치 계층에서만 사용되고 사회하층은 다만 백, 청, 흑색을 사용하였다. 황제예복은 자황, 촛불아래에서는 자홍으로 나타나며 산 나무로 염색한다. 평상복은 붉은색이다. 삼품 이상 복장은 자, 사품, 오품 복장은 비(붉은색)이고 육품, 칠품은 녹이며 팔품 구품은 청이다. 부녀는 남편의 색을 따른다. 서민은 대부분 흰옷(본색이 삼으로 된 천), 청옷(남 혹은 검은 옷)을 입었다. 옷 색깔에서 위는 아래와 통할 수 있지만 아래는 위와 통할 수 없다. 시대 변천에 따라 색채 사용에 대한 제한도 관대해졌다. 명칭 이후 민간에서는 홍색으로 경사로운 일을 장식했고 붉은 꽃으로 염지길례용 하였고 신부용 머리에 쓰는 붉은 수건 등 점차적으로 인심에 와 닿았다. 통치자는 색으로 정명하고 백성들은 색을 교묘하게 운용하였는데 양자는 복잡하게 교차되어 중화민족 특유의 색채애호와 장식특성이 있는 색채 사용 규율을 구성하였다.

한편 서양의 경우, 많은 연구자들이 색채에 관한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괴테는 색의 이미지 표현에 대한 연구를 행했

으며 이 연구를 통해 색은 각각 특수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힘을 지니며 이는 색이 일종의 언어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독일의 관념론적인 미학자 짜이징(Adolf Zeising) 역시 색이 지니는 언어적 의미기능을 반영한 이론을 전개시켰다.⁷⁾ 또한 칸딘스키의 경우는 색채를 도형의 성질과 운동성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색채가 전달하는 내적 성격과 물리적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빨강은 생기에 차고 활동적이며 힘, 에너지, 지향성, 결단성, 기쁨, 승리 등의 감정을 일깨운다.⁸⁾ 빨강은 관능적인 색이지만, 작은 색조 차이에 따라 그 느낌이 조금씩 달라진다. 노랑이나 주황 계열의 빨강은 보다 강렬하고 자극적이다. 메시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색은 아마도 빨강일 것이다. 주황은 자기 힘에 자신을 가진 사람과 같으며 이는 건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주황색은 대담하고 정렬적인 색이며, 따뜻하고 활기찬 성격의 소유자 역시 주황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옅은 복숭아색이나 산호색은 솔직함을 전달하며 흙색 톤의 주황은 환경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⁹⁾ 노랑은 대립되는 연상을 불러일으키는데 빛을 의미하며 따뜻함을 전

달하는 반면 발작적인 광포, 맹목적인 착란증, 광조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¹⁰⁾ 노랑은 자극적인 반면 낙천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노랑은 태양의 색이며 계몽과 지성을 표현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명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녹색은 노랑과 파랑을 혼합하여 이상적인 균형을 얻은 색이다. 녹색은 존재하는 색 중에서 가장 평온한 색이다. 부드러운 톤의 녹색은 이해심과 솔직함을, 어두운 녹색, 연두색, 청록색은 높은 지위를 상징한다. 파랑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진실과 신뢰와 존경의 색으로 사랑받는다. 이는 교양, 사교, 안정, 품위를 상징한다. 하늘색은 지혜와 정신세계를 상징하며 로얄 블루는 신뢰와 친절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색이다. 보라는 빨강이 파랑에 의해서 인간에게서 멀어져 감으로써 생겨난 색이다. 즉 보라색은 물리적, 심리적 의미에서 볼 때 냉각한 빨강으로 이는 내부에 비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보라는 낭만적이고 열정적이며 마술적이다. 짙은 보라색은 그 색이 지닌 배타성 때문에 경쟁우위를 암시한다. 흰색은 청순, 순수, 여성스러움을 연상하게 하며 속임수와 어두움이 없다.¹¹⁾¹²⁾ 흰색은 물질적인 성질이나

<표 2> 동·서양에서의 색채 이미지 및 연상

		동양 (중국)	서양
빨강		납죽, 여름, 불(火), 예(禮), 생명력, 왕, 왕비, 높은 벼슬아치의 복색, 귀신과 재액을 물리치는, 충성과 강직 및 혈기, 경사, 결혼	태양, 12월, 겨울, 용기와 성의, 정열, 혁명, 즐거움, 사랑, 증오, 힘, 유혹, 활력, 위험, 분노
주황			9월, 10월, 가을, 지력과 인내, 온화, 성숙, 건강, 만족, 질투, 행복, 맛난, 기쁨
노랑		오색의 중심, 중앙과 땅, 흙(土), 신(信), 천자, 왕, 꿈꿨이, 용맹	4월, 여름, 서쪽, 금, 희망, 유쾌, 광명, 활발, 경박, 질투, 시기, 이기심, 과장
녹색			재생, 8월, 봄, 평화, 건전, 안전, 이상, 젊음, 자연, 건강, 신선함, 희망, 비옥함
파랑		동쪽, 봄, 나무(木), 청(靑), 무성함, 강직과 도도함	권위, 2월, 7월, 여름, 남쪽, 경의와 성실, 냉정, 명상, 이지, 평정, 조화, 우정, 믿음, 영원
보라		근엄과 장중, 덕(德), 정의감(자주)	5월, 11월, 왕위와 고위, 우아, 고귀, 신비, 불안, 장중, 자유, 은밀함, 비밀, 상상, 창조
무채색 / 메탈릭	흰색	서쪽, 가을, 금(金), 의(義), 죽음, 간사함과 의심 많음, 흉악함, 포악함	흰색 신성, 1월, 겨울, 결백, 소박, 순결, 신성, 정직, 청정, 밝음, 순수, 새로움, 선, 진실
	검정	북쪽, 겨울, 물(水), 지(智), 공평무사, 강인, 이중	검정 1월, 겨울, 절망, 침묵, 죄, 죽음, 엄숙, 강건, 공포, 차가움, 걱정, 장엄, 슬픔
	메탈릭	위세와 장엄함(금색)신선이나 요괴	골드 태양신, 9월, 명예와 충절 실버 3월, 신안과 순수

실체로서 모든 색들이 사라진 세계의 상징과 같다. 이는 가능성으로 차 있는 침묵이며 시작하기 전의 무요, 태어나기 전의 무인 것이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무, 해가 진 후의 죽은 무, 미래와 희망이 없는 영원한 침묵과 같은 것이 검은색의 내적인 울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위에서는 어떠한 다른 색도 좀더 강하고 명확한 음향으로 울리는 것이다.¹³⁾

Ⅲ. 동서양 시대 복식을 통해 본 색채 이미지

1. 동양(중국)의 시대 복식에서의 색채

칭 말에 이르러, 러일 전쟁 후인 1912년에는 신해혁명이 성공하면서, 공화제인 중화민국(1911~1949)이 건국되고, 손 문이 임시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러나 손 문 사후에 국민정부와 공산당이 대립하면서 국민정부가 패하여 타이완으로 물러가고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78년 개혁 개방노선을 채택하면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라는 원칙 하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게 된다.¹⁴⁾ 이상에서 살펴보면, 1949년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전의 20세기 전반적 상황은, 중국의 아이덴티티가 포함된 전통복식의 정수를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중국 복식이라 이미지를 떠올리는 복식에 관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¹⁵⁾는, 중국 복식의 역사적 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형태의 복식, 다른 계급, 다른 지역 그룹에 다양한 의복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헌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세기 전반 대표적 주요 색은, 비비드한 빨강(173, 179, 1797)의 다양한 등장이다. 서양의 빨강에 비해 더 다양하고, 강렬하며, 이는 중국적인 빨강에 대한 관념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식색으로 진달래색에 가까운 분홍, 진홍색(210, 213) 등이 복식의 자수나 장식선으로 많이 사용된다. 주황 계열의 경우, 주 색상으로는 살색에 가까운 폐일한 톤(474)을 사용하거나 닙한 브라운(476)을 사용하지만, 장식색에 있어서는,

비교적 비비드한 주황(144)을 사용하고 있다. 서양에 비해 주황색 계열의 사용은 저조한 편이다. 노랑 계열의 경우, 황제색인 골드계열의 비비드한 노랑이 황제복식에 한해 제한되고 있으며, 대부분 폐일한 노랑(7403)이 전반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서양의 비비드한 노랑에 비해, 사용이 거의 없음을 볼 때, 계급에 연관되어 노랑의 사용이 많이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녹색 계열의 경우 폐일한 녹색(7492)을 주조색, 청자색에 가까운 다크한 녹색(3298, 3425)을 장식색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파랑색 계열의 경우, 선명한 하늘색(306, 310)은 자수 문양에 많이 등장하고, 그레이쉬한 하늘색은 옷 전면에 주로 사용되며, 남색군(7463) 역시 남성 복식 전면에서 많이 사용된다. 동양의 경우가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칭 시대 파랑색 계열 사용의 선호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보라색 계열의 색상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도 특이할 만한 요소인데, 이것 역시 계급적인 요소와 색채 인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무채색 계열의 경우, 검정이 선 장식이나, 보조색상, 포인트 색상으로 많이 등장하며, 서양에 비해 따듯한 느낌의 회색이 선호된다. 골드나 실버는, 프린트나 장식 색상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골드의 다양한 톤 변화가 장식선, 주요 원단 장식에 중요한 부분이다.

칭 시기의 의상색에 관해 살펴보면, 황제복식의 경우 노란색 새틴 용포이며, 황후 복식 역시 비비드한 황금색상이다. 이 외의 일반복식이나 관리복식 등에서 황금색을 주요색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황제, 황후에 국한된 색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색임을 알 수 있다. 관료복식의 경우, 식물무늬 포이며, 직위에 따라 모자의 보석장식으로 구별되고, 패치되는 문양에 따라 구별한다. 닙한 녹색이 섞인 파란색 계열을 주요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위계층 여성들의 예복의 경우, 그들의 남편 계급에 따라 입혀졌다. 한족 여성들의 복식은, 외투, 선이 들어간 재킷, 치마가 전형적인 차림이었다. 진홍색 등의 황제복식이나 현대 복식에 비해, 가라앉은 붉은 계열의 색상이 주요색을 이루거나, 밝은 남색이 주요색을 이루어, 검정색 선을 치거나 장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녹색 계열의 색상이 주요

색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왕별희의 주산 의상과도 비교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 꽃 자수를 전면에 화려하게 놓는 것이 특징이다. 자수무늬에 활용되는 색상은, 골드, 코발트, 분홍 색상이다. 만주족 여성들의 복식 역시 패왕별희 주산 의상과 비교할 만한데, 치파오의 이전 형태이다. 이 역시 선을 치는 장식을 무채색으로 하였다. 군복의 경우, 황토색에 브라운 선을 댄 것이 특징적이며, 골드 장식이 화려하다. 복식에 포함되는 원단과 장식 보더의 경우에는 빨강, 파랑, 녹색 등 비교적 비비드한 색상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근대 복식으로 넘어오면서, 일상복, 특히 여성들의 치파오에서 비비드한 빨강이 지배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중국인의 흥색과 관련한 색채의식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치파오, 중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복식의 색을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 주로 쓰이는 색상은, 검정 색상 장식, 비비드한 빨강, 주황색 계열에 가까운 빨강색이다. 남성의 경우, 랜턴 팬츠에 서양복식을 접목해서 입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딥한 파랑 주요색에 브라운 서양식 모자를 쓰는 것을 많이 관찰할 수 있다. 1920년대 초기의 선이 들어간 상의와 스커트가 애용되었는데, 흥등에서의 부인들에게서 많이 관찰할 수 있다. 붉은 계열에 실버, 골드 자수 장식이 나, 선을 두르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장식으로 들어가는 꽃 문양은, 금사나, 은사를 자수 놓은 것이 유행이었으며, 1930년대 치파오가 혁명적으로 유행되면서, 실크, 새틴에 패턴으로 또는 칼라, 소매, 단 부분에 장식 보더를 다는 것이 정형화되게 된다. 흥등, 패왕별희에서의 여성들이 대부분 입고 나오는 것이 치파오이다. 안감의 색상에 있어서도 빨강색 걸감에 골드 빛 노랑색 색상을 댄다거나 하는 등의 장식성을 보여준다. 여성들의 일상복의 경우, 흥등에서의 하녀들이나, 패왕별희에서의 일상복에서 볼 수 있다. 1930년대에는 서양 패션과의 혼합된 양상으로 인해, 색상이 좀 더 다양화되었을 것이다. 장신구 역시 흥등, 패왕별희 주산의 스타일과 비교 가능한데, 대부분 진주색, 호박색, 비치색 같은 보석류들의 색상이 지배하고 있다.

2. 서양의 시대 복식에서의 색채

20세기 전반기 서양의 복식에서 관찰되는 색채의 특징을 분류하기 위해 그 당시 디자이너의 작품 사진을 시기별로 편집한, 'Fashion-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Icons of fashion-The 20th century', 'Fashion Designers' 그리고 'Shocking! The Art and Fashion of Elsa Schiaparelli'-을 분석자료^{16),17),18),19)}로 삼았다.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16명 -Vionnet, Poiret, Chanel, Schiaparelli, McCardell, Norell, Fath 등-의 작품을 30점 선정 각 작품에서 보여지는 색상을 팬톤 칼라(Pantone color chip)를 기준으로 색상군별로 분류해 그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빨강색의 경우 주조색의 경우 비비드하고 스트롱한 빨강(179, 1795, 186)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1930년대에 많이 관찰된다. 더불어 검정이 소량 가미된 빨강(1817, 188)도 관찰되는데 이는 1920년대의 복식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장식색으로는 비비드한 빨강(1797, 187)와 더불어 흰색이 가미된 분홍 계열(182), 회색이 가미된 그레이쉬 빨강(695), 보라톤이 첨가된 빨강(215)등이 관찰된다. 이와 같은 장식색은 프린트된 원단에서 보여지는데 이는 1920년대 복식에서 비교적 많이 관찰된다. 주황색의 경우, 다른 색상군에 비해 분포가 높으며 특히 장식색이 많이 관찰된다. 이는 1920년대 복식의 경우는 단색의 원단보다는 패턴이 가미된 원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며 1930년대에는 누드톤의 원단이 많이 사용되었고 1940년대의 경우는 원색의 원단보다는 톤이 한 단계 다운된 원단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주조색의 경우는 비비드한 색상(171)과 더불어 흰색이 가미된 페일한 주황(162, 719), 회색이 가미된 탁한 색의 주황(735), 검은색이 가미된 밤색 계열(175)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장식색의 경우 색상의 분포는 주요색과 유사하며 호박색의 145, 녹색이 가미된 1405의 사용이 특이하다. 노랑색의 경우 비비드한 노랑(108)을 비롯해 페일한 색상(1215), 스트롱한 노랑(143), 그레이가 가미된 색상(466)등 다양한 색상 분포를

<표 3> 20세기 전반기 동·서양 복식 색채 비교

복식의 예	동양복식					서양복식				
	주요색					색채번호				
빨강 동양						173.179.1797.180 1805.187.1905.1915 201.219.700. 701				
						180.1805.1807.181. 1905. 191. 1915. 210. 213. 691. 694. 699. 7418. 7423. 7425				
서양						179.1795.1817.183. 186188. 1925				
						1788.1797.182.187 192. 215. 695. 697				
주황 동양						174.474.476.489				
						144. 167. 1595. 476. 477. 488. 489. 714. 728. 7413. 7506				
서양						1525.162.171.175 4735. 719				
						주황. 1405. 145. 1525. 154. 172. 173. 4635. 4675. 7506. 7508. 7521				
노랑 동양						129.467. 468. 616 7403				
						468.616.617.7403 7499. 7500				
서양						108. 116. 1215 1245. 143. 466				
						121. 1215. 130. 141				
녹색 동양						7472. 7492				
						3298.3425.454. 563. 7476. 7477				
서양						3308.354.363.368. 371. 625				
						3288				
파랑 동양						290.653.7462.7463				
						2945.306.310.3125. 542.633.7458. 7461. 7462				
서양						305. 631. 7468				
						2708. 278. 2945. 306. 653				
보라 동양						5275				
						251. 258				
서양						보라. 2597. 2756 5115. 7450				
						7455				
부채색 동양 /메탈릭						W.G.I.W.G.2.419 533. 7530. 7537 골드				
						W.G.1.419.426.7534. 7535.7541.7547. 골드.실버.8003. 8021				
서양						413. 415. 532 골드. 실버. 김정 흰색				
						428. 443. 골드. 김정. 흰색				

나타내고 있으며 장식색의 경우는 폐일한 톤의 노랑(121. 141)이 주를 이룬다. 녹색 계열의 경우는 주조색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장식색으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특히 녹색 계열은 1920년대 활동했던 디자이너인 Vionnet, Poiret, Fortuny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비비드한 녹색(354)

을 비롯해 연두색(368), 카키색(371), 블랙이 가미된 색상(3308) 등 다양한 색상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랑색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른 색상에 비해 빈도가 낮으며 1930년대 복식에서 많이 관찰된다. 비비드한 색상보다는 흰색이 가미되거나 회색 등이 가미된 톤 다운된 색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Fortuny가 사용한 청자색(7468), Schiaparelli가 사용한 페일 블루(305)가 특징적이다. 보라색 계열은 녹색 계열처럼 주요색의 분포가 주를 이루며 장식색으로는 흰색이 많이 가미된 색상(7445)이 1920년대 패턴에서 관찰된다. 주요색의 분포는 비비드한 색상부터 페일한 색상까지 넓은 분포를 나타낸다. 무채색 계열은 흰색과 검정을 비롯한 회색 계열의 색상으로, 특히 검정은 모든 시기에 고른 분포를 나타내는 반면 회색 계열의 색상(413, 415, 428, 532)은 1940년대에 많이 관찰되는데 이는 전쟁의 영향이 복식의 색상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려된다. 특히 회색 계열의 색상은 드레스 종류의 복식보다는 1940년대 복식인 테일러드 수트에서 주로 관찰된다. 메탈릭 계열의 색상인 골드와 실버의 경우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많이 관찰되며 특히 Vionnet, Poiret, Chanel, Schiaparelli의 작품에서 많이 나타난다.

디자이너별로 색채의 사용을 살펴보면 우선 Vionnet의 경우, 1930년대 이전에는 골드와 실버를 비롯해 채도가 낮은 색상을 주로 사용하나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명도와 채도가 높은 난색 계열과 검정을 많이 사용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Poiret의 경우는 다른 디자이너의 비해 모든 색상군의 색을 고르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메탈릭한 느낌을 순색에 가미하여 에스닉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있으며 비비드한 색상과 한 톤 낮아진 색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Chanel의 경우, 검정과 골드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그 외의 색상의 경우는 톤이 한 단계 낮아진 빨강 계열의 색상과 녹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검정색의 경우도 다른 색상이 가미된 색을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느낌의 검정을 관찰할 수 있다. Schiaparelli의 경우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로 색채의 사용에서도 그 특성이 관찰되어진다. 특히 빨강 계열의 색상을 다양

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그녀가 만든 shocking pink가 특징적이다. 파랑색의 사용에서도 채도와 명도가 높은 파랑을 사용하고 있으며 검정과 흰색 또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메탈릭 칼라의 사용도 두드러진다.

10년 단위로 색상 사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1920년대는 주요색보다는 장식색의 분포가 많은데 이는 복식에 사용된 원단의 영향으로 단색의 원단보다는 다양한 패턴이 있는 원단이 주로 사용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황색 계열 색상의 사용 증가가 두드러지며 누드 톤을 비롯해 비비드한 색상, 다크한 색상 등 다양한 분포의 사용이 관찰된다. 특히 메탈릭 색상의 사용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시대가 오리엔탈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1930년대는 장식색의 분포가 현저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1920년대와는 달리 단색의 원단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빨강 계열의 사용이 증가했으며 주황색이 가미된 빨강, 비비드한 빨강이 관찰된다. 한편 주황색 계열의 색상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누드 톤의 색상만이 관찰된다. 녹색, 파랑, 보라 등 한색 계열의 사용은 감소하고 있으며, 가장 커다란 특성은 검정의 사용 빈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40년대는 주황색 계열의 색상 사용이 증가하고 특히 브라운 톤의 다크한 색이 많이 관찰되며 이는 색감을 풍부하게 한다. 특히 노랑색 계열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회색의 사용도 두드러진 특성이다. 반면, 메탈릭한 색상의 사용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IV. 동서양 영화의상을 통해 본 색채이미지의 재현

세계 4대 영화제에서 감독상, 작품상, 의상상을 수여한 작품 중 20세기 전반을 다룬 영화를 고르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색감을 재현하는 방식이나 스크린을 통해 보이는 색감이 현재의 동, 서양을 대표하는 색감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감독의 특성, 제작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 캐릭터의 성격 등 다변적 변수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관객에게 어떤 특징적인 색감으로 그 영

화가 인지되었으며, 이렇게 기억된 색감은, 시대특성을 하나의 색감으로 기억할 것이며, 그 기억은 이미지화될 것이다. 대표적인 영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대 문화로 각인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대영화의 현대적 재현의 관점에서 본 영화색감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1. 동양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의 색채

1) 패왕별희(Farewell My Concubine)

경극 배우의 동성애적 사랑과 중국의 시대상을 반영한 작품으로 살로, 데이, 주산이 주요 인물로, 1924년 군벌시대부터 문화혁명을 거쳐 1977년 중국의 역사를 아우른다. 중화민국시대, 항일전쟁시대, 내전시대, 중화인민공화국시대, 토지개혁운동, 반우파 운동, 문화혁명, 개혁시대를 모두 경험한다. 경극 장면에서도, 초패왕의 사랑과 죽음으로 그 사랑에 화답한 우희의 절개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 패왕별희의 이미지가 잘 드러난다. 현대인들이 문화적 특성을 인지하는 데 <패왕별희>의 경우, 일상복과 경극의상이 동시에 등장하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어, 무엇보다도 중국적인 색감을 특수한 정서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미지화한 작품이다.

흐름을 위해 다양한 색상 톤의 에스닉한 이미지의 색상과 블랙 앤 화이트의 정리된 색상이 대조되어, 극적인 부분을 연출한다. 모노톤 대비와 강렬한 색상대비가 상극으로 조화되어,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우리가 현대 중국적인 빨강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시대적인 색감에서라기보다는 <패왕별희>같은 곳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극의상에서의 빨강에 더 가깝다. 특히 주산과 살로의 혼례식은 중국 문화에서의 붉은 색의 숭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주산은 돌돌 말린 붉은 천을 가리고, 붉은 옷을 입고 등장한다. 신부의 얼굴을 붉은 천으로 가리는 것과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것이 붉은 색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이 중국적인 분위기를 가장 잘 인식시켜 주고 있다.

주인공 데이의 경우, 어린 시절에서의 경극 의상 노랑색과 파랑색의 대비에서보다 성인 장면에서의

노랑, 파랑의 대비는 더 강렬하다. 데이는 블랙 화이트의 일반 의상과 노랑과 파랑의 강렬한 경극의상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색상 대비는, 시대 색감에서는 도출할 수 없었던 계획적인 색상대비이며, 극적 연출을 위해 붉은 계열의 배경색과 상대배역 살로의 검정, 골드, 노랑의 강한 색상대비와 함께 하여, 경극의상의 화려함의 극치를 전달해 주고 있다. 충열을 상징하는 홍색 분장 역시 중국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전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반면 어린 시절의 데이 의상 등에서 사용한 짙은 회색이나 하늘색, 미색은 시대색에서 발견한 색감과 유사하며, 좀 더 자연스러운 시대색을 재현하고 있다. 주산 의상에서의 카키 계열, 하양 의상들은, 시대색에서 보다 훨씬 현대적인 색감을 보여주고 있다. 주산의 결혼식 장면에서의 빨강색 의상을 제외하고는, 중국 시대색감에서의 치파오의 색감과는 다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살로의 경우 역시 블랙 앤 화이트, 그레이의 일반 의상과 경극에서의 검정, 골드, 빨강, 노랑의 조화로 이루어졌으며, 주인공 데이에 비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겁고 강한 성격의 이미지를 경극의상에서 전달하고 있다.

2) 홍등(Raise the Red Lantern)

1920~1940년대 사이를 배경으로 한 장 이모우의 작품으로, 혼인, 성, 여성의 운명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고,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와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대작가 수통의 소설 [처와 첩이 무리를 이루다.]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영화이다. 홍등에서는, 대표적인 중국 여성의 1920년대 사계절 의상변화를 볼 수 있다. 여름에는 짧은 팔의 치파오를 입고 겨울에는 비단으로 된 긴 치파오 위에 짧은 외투를 걸친다. 또한 주요 성격, 신분별 의상의 다양한 색상 매치를 볼 수 있다. 가부장 사회의 가장의 얼굴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특징 역시 특이할 만한 점인데, 의도적으로 정확한 형상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특수한 캐릭터가 아니라, 당시의 그만한 정도의 계급이나 위치의 사람이 모두 그러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가부장적인 사회의 모순점에 대한 비판을 그리지만, 비판의 대상은 뒤로 물러나 있고, 화살은 여성들에게 철

저희 의도적이고 잔인하게 꽃힌다. 가문 지붕 위의 밀실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흥등에 등장하는 4명의 부인 역시 특정계층에 비유할 수 있는 성격으로 구분되어 분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오랜 세월 동안 몸담아 오면서 낡은 인습에 익숙해져 버린 인물로 속세를 달관한 종교인에 비유될 수 있으며, 둘째 부인은, 주위 인물들에게 선심을 얻기 위해 감언이설에 능한 인물로 정치 권술가에 비유된다. 셋째 부인은, 풍류와 유희를 즐기며 속박을 싫어하여 은밀하게 자유연애를 즐기는 인물로 예술가에 비유되며, 넷째 부인은, 대학을 다닌 적이 있고, 젊고 열정적이며, 단순하고 현실적인 인물로 지식인에 비유할 수 있다.²⁰⁾²¹⁾

가장 중국적인 색상으로, 패왕별희보다는 좀 더 어두운 느낌의 붉은색을 보여준다. 여성스러운 자줏빛이 도는 붉은색이거나, 좀 더 봉건적인 느낌의 붉은색이다. 사합집이라는 중국 전통 가옥에서 일어나는 사계절의 사건들로, 크게 푸른색 필터와 흥등의 붉은 조명으로 대비되어 나타난다. 이에 어울리는 다양한 성격과 계층의 여성 의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시대색감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보라 계열의 의상이 부인 복식에서 드러나며, 붉은 계열의 시대복식의 색상매치가 간결화되고 현대화되어 들어가게 된다. 시대색감의 강렬한 매치보다는, 골드 계열이 빠짐으로 해서, 좀 더 현대적인 서양 에스닉 룩에 등장하는 색채분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개개의 복식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치파오의 주요 색상과 장식색상을 재현해 주고 있다. 먼저 주인공 네번째 부인의 경우, 블랙 앤 화이트 학생복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마지막 장면도 검은색 스커트에 흰색 블라우스로 끝을 맺는다. 다양한 심리 변화에 의해, 절정에 이르러, 다양한 톤 변화의 빨강색 계열 의상에 등장하지만, 대체적으로 흰색, 하늘색의 매치를 중성적인 느낌으로 전달한다. 첫 번째 부인은, 초탈한 종교인에 비유했듯이, 보라, 브라운의 장식이 들어가지 않은 주요색을 크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입는다. 반면 두 번째 부인의 경우, 처음에는 카키 계열, 보라 계열의 다양한 톤 변화 차림, 진홍색이나 골드 등의 강조색으로, 보라색 계열의 성격 묘사를 상징적으로 전달한다. 보라색의 서양적인 상

징성을 도입한 부분이 좀 더 중국의 보라색에 관한 의미를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부인의 경우, 가장 중국적인 이미지를 가지적으로 전달하는 인물로, 중국 하면 떠오르는 빨강의 이미지에 청이나 근대, 현대 복식에서 시대색감을 뽐냈던 다양한 빨강, 주황, 파랑색 계열의 색상매치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첫째, 둘째, 넷째 부인이 사용했던 색감은 다 가지고 있으며, 흥등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색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하녀 중 대표적인 첩이 되기를 원하는 하녀의 경우, 폐일한 보라색, 분홍색 의상을 입고 나오며, 네번째 부인을 시기 질투하게 된다. 이는 시대색과 비교했을 때 폐일한 톤 사용에서는 유사하나, 보라색을 사용한 것은 영화만의 특징이다.

3) 시대색과의 비교

분석대상인 장이모우 감독의 <흥등>과 첸 카이거 감독의 <패왕별희>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민족의식을 표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양의 민속경관을 이용해 그들의 역사적 열정과 철학적 열정을 표현한다.²²⁾ 반면 너무도 계획화되고 상품화되어 세계 서양 문화에 선보여 졌으므로, 오리엔탈리즘적 영화라는 평을 받기도 하는 작품들이다. 패왕별희의 경우, 구조의 치밀함과 서술의 복잡성이 결합되어, 좀 더 계획적으로 세계시장에 접근한 중국영화라 할 수 있으며, 장이모우의 <흥등>은, 서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매우 강렬한 색채, 음악에서 감성적인 부분이 분방하게 드러나며 묘사가 다채롭다.²³⁾ 조명과 색채의 독특한 도입방법도 특징적인데, 스토리에 의해 현실을 표현하려 하지 않았으며 영화의 조형수법을 사용하고 관객이 현실에 밀착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시도했다. 이러한 영화적 특성으로, 세계 문화에서 동양 색채 이미지는,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두 영화의 색채를 사용하는 의도의 차이점을 인식하며, 20세기 전반의 중국 색채이미지와 영화의상에서의 색채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영화에서는 현대적인 색채가 가미되고, 시대적인 색감이 정리되어, 중국적인 색채라고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색감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차이니스 레드나 블루에 해당하는 색감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들이며, 다른 색감을 좀 더 계획적으로 구성한 결과, 영화색에서 시대색을 재현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한 영화에서는, 좀 더 계획적인 구상으로 인해, 색상대비가 강렬하며, 다른 영화에서는, 감각적인 부분을 서정적으로 풀어내어, 대표적인 레드계열을 제외하고는 현대적인 색감에 맞추어 에스닉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라 계열의 경우, 시대색에서는 많이 볼 수 없었으나, 호박색이나 옥색과의 배색으로, 흥등에서의 여성 의상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캐릭터의 성격을 묘사하기 위한 상징적인 색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더 현대적인 해석을 첨가하기 위한 색상으로 분석된다. 또한 <패왕별희>색감은 경극의상과 일반의상이 번갈아가며 극을 이루어 가는 특성상, 일반의상은 다양한 색상에서 좀 더 계획적으로 다채로운 검정과 흰색, 중성적인 회색기미의 색상이었고, 반면 경극의상에서는, 시대색에서 도출한 색감보다 훨씬 비비드한 색상을 연출하고, 색상배색에 있어서도 골드와 파랑, 비비드한 노랑과 파랑색, 빨강과 검정 배색의 강렬한 매치를 전달하고 있다. 반면, 기본적인 중국색감을 잘 재현하는 부분에 있어, 시대색에서 도출했던, 차이니스레드, 황토색, 옥색, 미색에 가까운 녹색, 다크한 청록색, 녹색 기미의 푸른색을 주요색으로 전달래색이나, 하늘색의 자주 색상이 포함된다. 그러나 재현성 부분에 있어, 차이니스 레드의 톤 변화와, 좀 더 분명한 캐릭터를 보강하기 위한 채도 명도의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시대 유물에서 살펴본 색에 비해, 제한된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색상배색에 있어서도 한 가지 주요색에 여러 가지 문양의 색상을 사용한 것에 비해, 영화배색에서는, <패왕별희>경극 의상을 제외하고는, 좀 더 모던한 이미지의 배색이 이루어진다. 또한 주황, 노랑 그룹에서의 경우, 시대색감에서 볼 수 없었던 브라이트한 주황 계열이 등장한다. 시대색감에서보다 녹색 계열의 다양한 등장도 또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러한 강렬하게 계획되고 제한된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시대색감에서 볼 수 있었던 색감보다 더욱 더 강렬하게 전달된다. <패왕별

희>의 색채가 현대적인 계획성과 시대적인 색감을 가미한 동양적인 강렬함을 동시에 치밀하게 구조화한 것이라면, <흥등>의 색채는, 동양의 감성을 서정적으로 통일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인물의 색상을 성격이나 감정표현에 적절하게 배열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서양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의 색채

1) 시카고(Chicago)

'시카고'는 롭 마셜(Rob Marshall) 감독이 2003년 'Bob Fosse'의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재즈와 광란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며 클럽의 댄서들이 주요 등장 인물들로 비즈로 장식된 화려한 댄서 의상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 의상은 콜린 애드우드(Colleen Atwood)가 디자인 했으며 그녀의 이러한 화려한 의상들은 배경의 색상 또는 조명의 색상들과 대조를 주어 비주얼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녀는 <시카고>에서의 관능적이면서 멋진 의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패션, 장식 디자인, 바우하우스와 큐비즘으로부터 참고한 1920년대 예술과 스타일에 대한 조사를 했으며 시대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살리지만 현대적인 감각의 해석을 가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각각의 의상들을 또한 등장인물들의 개별적인 성격 역시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²⁴⁾

주요 등장 인물인 벨마(Velma), 록시(Roxie)와 빌리(Billy)를 중심으로 색상의 사용을 살펴보았다. 벨마의 경우 그녀의 강한 캐릭터를 비주얼하게 나타내게 하는 장치로, 배경색과 의상색의 대비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배경색은 인물의 색채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칫 장면 클럽에서 재즈를 부르는 벨마의 모습이다. 그녀는 검정색 의상을 입고 있으며, 미묘한 색감의 변화를 가진 푸른색 계열의 색상(286, 293, 295, 648)배경과, 재즈 선율의 음향 효과, 배경색의 조명효과와 울동감은, 인물의 의상 색채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리드하고 있다. 또한 벨마가 빨강색 계열(Red 032M, 192)의 의상을 입은 장면에서는 푸른색 계열의 배경색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과 더불어 인물의 성격, 의상을 통한 생동감을 강조하고 있다. 벨마의 경우 검정, 빨강색 계열, 실버, 흰색 등이 의상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배경색상으로 푸른색 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록시는 댄서가 되는 것이 꿈인 순박한 여성에서 기회주의자로 변화하는 역할로 의상색의 선택에서도 이러한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록시의 경우, 벨마와 대조를 이루는 캐릭터로 벨마에 비해 소프트한 색상을 사용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빨강의 사용에서도 흰색과 회색이 가미된 폐일한 레드(701, 7431)가 사용되고 있으며 주황색 계열의 경우는 누드톤의 색상(726)이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 색상군 역시 흰색 또는 회색이 가미된 폐일한 색상(607, 339, 454, 5205)이 사용되고 있어 톤 다운된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더불어 블랙과 화이트, 실버 색상의 사용도 두드러진다. 빌리의 경우는 블랙과 화이트를 기본으로 하며, 여성복에 비해 다크한 색상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검정이 가미된 빨강색(209)과 주황(1405)이 사용되고 있으며 검정색의 경우도 미묘한 톤의 차이를 주어 다양함을 표현해 주고 있다. 다크한 색상의 사용은 여성복의 색상과 대비를 주어 여성복의 화려함과 다양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은 한다고 할 수 있다. 배경에 사용된 색상을 살펴보면 벨마가 춤을 출 때 주로 사용되는 푸른색 계열의 색상(293, 2935, 295)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파랑색과 대비를 주는 배경색으로 붉은색 계열의 색상(186, 192, 1955)의 사용도 특징적이다. 그 외 골드의 경우도 배경 색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시각적으로 매우 비주얼하고 강렬한 대비의 색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춤과 노래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영화의 특성과 잘 어우러져 영화의 극적인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 또한 음악과 어우러지는 의상과 배경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감은 관객이 등장인물의 성격과 극의 흐름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2) 잉글리쉬 패이션트(The English Patient)

1997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안소니 밉겔라(Anthony Minghella)의 감독상을 비롯해 작품상, 의상상을 포함해 8개 부분에 수상을 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영상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쟁과 사막이라는 극적인 상황에서 시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이 영화의 색감은 이와 같은 이미지와 감동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비주얼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후반부터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기이며 공간적 배경은 카이로 사막과 이태리의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다. 사막이 주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이로 인해 화면에서 보여지는 주요한 색상은 주황색 계열과 노란색 계열이 주를 이루며 소프트한 색감은 영화의 분위기를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앤 로스(Ann Roth)가 디자인한 의상도 배경의 색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색상을 사용하고 있어 자연과 인간이 동화되는 느낌을 전달해 주고 있다.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한나(Hana)의 의상색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색상군인 녹색, 파랑, 보라색 계열로 특징지워진다. 녹색 계열의 색채가 주로 관찰되는 것은 군의관인 그녀의 직업의 영향으로 군복을 통해 보여지고 다크 그린(3435), 회색이 가미된 녹색(5773), 노랑색이 가미된 녹색(7503) 등 다양한 녹색 계열의 색상이 사용되고 있다. 파랑색의 경우는 비비드한 푸른색(286, 294)이 관찰되고 보라색의 경우는 회색이 가미된 색상(4995, 5005)이 사용되고 있다. 그녀의 의상에 사용된 색상은 부드럽고 자연에 순응하는 그녀의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쟁 중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그녀의 운명, 순수한 사랑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남자 주인공인 알마시(Almasy)의 의상은 주황, 녹색, 파랑색 계열의 색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주요 배경이 사막인 만큼 의상의 색상도 자연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주로 사용하여 자연과 하나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또한 흰색보다는 회색이 가미된 색상을 전반적으로 사용하여 부드럽고, 섬세하며 상처받기 쉬운 그의 캐릭터를 표현해주고 있다. 사막의 흙

의 색상을 연상시키는 주황색 계열의 색상(4715, 728), 카키톤의 녹색(5773), 안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보라색 계열의 색상(436) 등이 특징적이다. 알마시와 운명적인 사랑을 하는 캐서린(Katherine)의 경우는 알마시와 공통으로 사용된 녹색 계열의 색상(7475)을 제외하고는 난색 계열의 색상만을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그녀의 의상의 색상은 깊고 짙은 색상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우아하고 귀족적인 그녀의 캐릭터를 색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으며 또한 두 가지 사랑에서 고뇌하는 그녀의 심경을 잘 묘사한다고 하겠다. 붉은색 계열의 경우는 검정이 가미된 빨강(1805, 1817)을 사용하여 풍부하고 깊은 색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황색과 노란색 계열에서는 흰색이 가미되어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흰색과 검정색은 기본 칼라로 모든 인물의 의상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영화의 배경은 영화의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배경에 사용된 색상 역시 영화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카이로의 사막이 주 배경인 만큼 주황색 계열과 노란색 계열의 색상이 주로 관찰되며 더불어 녹색 계열의 색감도 눈에 띈다. 주로 흰색이나 회색이 가미된 페일한 톤의 색상(4545, 4685, 5783, 5803, 729, 7500 7509)이 주를 이루고 더불어 검정이 가미된 색상(1815, 4625, 731, 7516)이 첨가되어 풍부한 색감을 더해 준다고 하겠다.

3) 시대색과의 비교

20세기 초반 복식에서 관찰되는 색상과 현대에 만들어진 20세기를 재현하는 영화의 의상에서의 색상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빨강색의 경우 전반적으로 시대 복식에 사용된 색상이 더 비비드하고 스트롱한 것을 알 수 있고 영화에서 사용된 색상의 경우는 주황기가 가미되어 더 브라이트한 경향을 보이거나(Red 032M, Warm Red M) 또는 흰색이 첨가된 분홍톤의 빨강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황색 계열의 경우 시대복식의 경우가 다양한 톤과 분포를 나타내며 넓은 범위의 색상이 사용되고 있고 사용 빈도도 많은 반면 영화의 경우는 주로 페일하고 소프트한 주황색이 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란색의 경우는 시대 복식의 색상이 더 브라이트하고 비비드하며 강렬한 색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화의 경우는 흰색이 많이 가미되어진 페일한 노랑이 사용되고 있다.

녹색 계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대복식에 사용된 색상이 더 비비드하고 스트롱하며 영화에 사용된 녹색의 경우는 흰색 또는 회색이 가미된 칼라가 사용되고 있다. 파랑색의 경우는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대복식에 사용된 색상은 흰색이 가미된 소프트한 색상이 사용된 반면 영화에 사용된 파랑은 비비드하고 스트롱한 색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특히 '시카고'에서 사용된 배경색의 영향으로 의상의 색상과 대비를 주기 위해 더욱 더 비비드한 색감을 사용한 것으로 사려된다. 보라색 계열의 경우도 시대 복식의 경우가 비비드하고 스트롱한 반면 복식에 사용된 색감은 부드럽고 소프트한 색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트럴 계열의 경우는 시대복식의 경우 다양한 톤의 회색이 관찰되지만 영화의상의 경우는 주로 검정색과 흰색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화면상에서 색상을 뽑아내는 점에서 돌출되는 문제로, 미묘한 색상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인쇄물에서 구별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시대복식에서는 메탈릭 계열의 색상인 골드와 실버가 다수 관찰되지만 영화의상의 경우는 주로 '시카고'의 댄서 의상의 경우에만 관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대 색감이 영화에서 사용된 색감에 비해 비비드하고 강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색채가 인물의 캐릭터를 묘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색감에서의 강조, 변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그러나 '시카고'에 사용된 파랑색 계열의 경우 시대색보다 비비드한 색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인물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을 부각시켜 주기 위한 배경 색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20세기 전반 동·서양의 시대색에 관한 비교 연구

<표 4> 동·서양 영화의상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비교

(주요색은 밑줄표시를 하였고, 장식색은 밑줄이 없음)

영화장면	동양					서양						
	패왕병희	홍등	시카고	잉글리쉬 제이선트								
인물별 색채	발상	179 176 177 179 189 190 7420	상록	주산	리사	부인들	베마	루시	민리	한나	알마시	캐서린
	주황	172 169	0r021 728 169 172 483	172	702 180 1803 198 7419	179 179 180 1765	R 032 192 1788 1805	warnK 701 7431	209	4695	4715 728	1805 1817
	노랑	101 123 128 604 7402 7499	121			1525 1545 477 7411 145	7406 7407 7406		485 726	1405		1615 4645 488
	녹색	450 5535 5605 625 626 321 3135 3145 3295 5757	450	5535 5565 316 5757		3248 344 7489 7503		339 454		3435 371 5773 5803 7475		7475
	파랑	294 307 638 640	2935		291 660 291 654	296 3005 307	286 293 295 648 653	2945	2935	286 2925 294	7458	
	보라	436				263 525 5285 668 7446	504	5205		4995 5005	436	
	무채색·패턴	black 408 7541 7544 875 876	white 415 black white 412 873	white black 447 white black 8062 876	black white 7529 white black 7529 7530 7533 876	black white 7546 7547 7528 876	black white 7547 white silver	black white silver	black white silver	black white 440	white white	white black

V. 결론

우선, 동양과 서양의 복식에 나타난 색상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빨강 계열의 경우, 빈도수에서는 동양의 경우가 2배 가량 많이 관찰되며 서양의 빨강색의 색감보다 동양의 빨강색의 색감이 더 비비드하고 강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색상의 분포 범위도 동양의 경우가 다양하며 다른 색상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동양의 붉은색에 대한 선호를 알 수 있다. 주황색의 경우는 빨강 계열과는 반대로 서양이 동양보다 빈도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색상의 분포 범위의 경우도 서양의 경우가 주요색과 장식색 모두 비비드한 색상부터 페일한 색상까지 다양한 범위로 사용되고 있으나 동양의 경우, 주요색은 페일하거나 덜한 색상이, 장식색으로는 비비드한 색상이 사용되어 대비적 성향을 나타낸다. 노랑 계열의 경우는 동양의 경우 황제의 색상이라 하여 비비드하고 스트롱한 색상은 사용되지 않고 페일한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서양의 경우는 비비드한 노랑을 비롯해 다양한 범위의 노랑색이 사용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녹색의 경우는 동양에서는 주로 장식색으로 서양의 경우는 주요색으로 많이 사용되는 상반된 특성을 나타낸다. 색의 사용에서도 상반된 특성을 나타내는데 동양의 경우는 페일한 녹색이 서양의 경우는 비비드하고 브라이트한 녹색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녹색의 경우는 서양이 동양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파랑색의 경우, 동양이 사용빈도가 많으며 색상도 더 강하고 선명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경우는 다른 색상군에 비해 사용빈도도 현저하게 낮으며 색감의 경우도 톤 다운된 색상이 관찰되는 반면에 동양의 경우는 복식 전체에 사용되는 등 파랑색에 대한 선호도를 알 수 있다. 녹색과 파랑색 계열에서 동양과 서양이 상반되는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라색의 경우는 동양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서양의 경우는 동양에 비해 다양한 색감이 사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무채색 계열의 경우 검정과 흰색은 동양과 서양 모두 기본적인 색상으로 관찰되며 회색의 경우는 동양은 따뜻한 회색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서양의 경

우는 차가운 느낌의 회색이 사용되고 있다. 골드와 실버는 동양 복식에서는 프린트나 장식색상으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서양의 경우는 복식 자체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색채 선호도에 있어 빨강, 파랑 계열의 경우는 동양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에 비해 주황, 노랑, 녹색, 보라 계열의 경우, 서양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문화에 따른 색의 중요성, 문화별 시대색에 관한 비교와 영화색감의 재현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동, 서양 영화색감을 분석해 본 결과 우선, 계열별로 정리해 보면, 서양의 경우 아주 정련되어 있어 군별 색상이 비슷한 채도, 명도에서 정리된 색감을 보여주는 반면, 동양의 색상은 장식색과 주요색이 다양하게 섞여, 같은 계열의 색일 경우에도 명도, 채도의 차이의 간격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돈된 서양의 색, 발산된 동양의 색을 자세히 살펴보면, 빨강계열의 경우, 서양의 빨강은 전반적으로 동양에 비해 스트롱한 편이며, 동양의 빨강은, 주황색 계열이 들어간 강렬한 색을 주요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식색으로, 분홍계열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주황 계열은, 베이지톤으로 정리된 서양의 색에 비해, 스트롱한 주황이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황이 동양에서 등장한다. 노랑의 경우에도, 서양은, 페일하고 화이트에 가까운 색인 반면, 동양은 순색에 가까운 노랑을 거침없이 사용한다. 녹색계열은 동양의 경우, 진녹색을 주요색으로 많이 쓰고, 브라이트한 청록색을 장식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양의 경우, 파스텔톤 색의 정리가 조화롭게 보인다. 파랑의 경우에는, 서양의 경우가 더 스트롱하고 덜한 색상을 많이 쓰고 있고 동양의 경우, 주요색으로 하늘색을 쓰고 있다. 서양의 경우 파랑의 사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보라계열의 경우, 시대색감과 다르게 흥동의 여인들을 통해 보라계열이 다양하게 등장하며, 서양의 경우 페일한 보라가 보인다. 무채색/메탈릭의 경우, 동양에서 장식색으로 사용되는 골드가 현저히 드러나며, 따뜻한 회색계열의 사용이 다양한 반면, 서양은 검정, 흰색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살펴본 영화색감은, 서양의 경우 두드러지는 색 없이 주변색과의

조화를 생각하여, 비슷한 톤의 색감으로 정리하여 색을 구성하는 반면, 동양의 경우 강한 색감들을 동시에 사용함으로 인해 강렬한 동양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문화별 다양한 색채 선호도와 재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20세기 전반의 문화 이미지를 색채 이미지화하여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각 문화별로 상징하는 색채의 이미지와 기호 체계의 차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20세기 전반기 각 문화별 색채의 사용과 선호도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것이 현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방식에서도 각 문화별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과거의 색을 그대로 재현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삶과 감성을 비주얼하게 전달해야 하는 매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영화가 표현해내야 하는 인물의 성격, 시대적 상황, 연출가의 의도가 결합하여 나름대로의 독특한 색채를 화면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이는 영화가 단순히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창조해 내는 매체이기에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추후 색채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시대 문화와의 관련성 있는 연구와, 시대 영화의 색채이미지 사용의 좀 더 다양한 접근방법, 디자인 방식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문화별 색채 사용의 의미, 현대적 시각에서의 색채 이미지의 인식과 창조, 시대색의 대중적인 인지에 대한 연구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오은경 (1989). 한국인의 색채의미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6-24.
- 2) 이선재 (1998). 의상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pp. 233-250.
- 3) 홍나영 외 (2004). 아시아 전통복식. 서울: 교문사.
- 4) 송철규 (2004). 경극. 살림지식총서, pp. 72-77.
- 5) 장길환 (1996). 중국의 색채 교육 체계와 특징에 관한 연구. 동명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공모과제
- 6) 마건신 (1996). 회화색채논석. 상해 인민미술 출판사, pp. 86-90.
- 7) 박은주 (2001). 색채 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pp. 273-292.
- 8) Kandinsky, W. (1912). 권영길 역 (1981).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서울: 열화당, pp. 90-99.
- 9) 이선재 (1998). 앞의 책, pp. 233-250.
- 10) 이현주 (1999). 노란색 이미지에 의한 복식디자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석사학위논문, pp. 15-35.
- 11) 이선재 (1998). 앞의 책, pp. 233-250.
- 12) Kandinsky, W. (1912). 권영길 역 (1981). 앞의 책, pp. 90-99.
- 13) 홍종숙 (1997). 칸딘스키 회화에 나타난 색채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2-26.
- 14) 홍나영 외 (2004). 앞의 책.
- 15) Zhou Xun, Gao Chunning (1984).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 China Books&Periodicals, Inc. Editing: The Chinese Research group of the Shanghai School of Traditional Operas
- 16) Fukai, A. (2002). *Fashion-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Taschen, pp. 382-500.
- 17) Buxbaum, G. (1999). *Icons of fashion-The 20th century*. Prestel, pp. 43-52.
- 18) Golbin, P. (2001). *Fashion designers*. Watson-Guptill Publications.
- 19) Blum, D. E. (2003). *Shocking! The Art and Fashion of Elsa Schiaparelli*. Philadelphia Museum of Art.
- 20) 제영미 (2003). 중국 제5세대 장이모 감독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민족의식. 동의대 중문과 석사논문.
- 21) 이혜영 (2001). 영화를 통한 중국문화 교육.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22) 인홍 (2002). 중국영상문화의 이해. 학교재.
- 23) 주진숙 (2004). 중국영화의 역사, 경향, 그리고 새로운 세대. 아시아영화연구, 한국영화학회
- 24) 시카고 DVD title 표지, 2005. 9. 7. 재출시, 스타맥스 (제작사) 검색 2005.
- 25) 조필교, 정해민 (2001). 패션 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pp. 76-98.